

인 터 뷰

집행부와 경제와 균형, 상생과 조화로 관계설정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 축소판 국회로 지방의회 실험의 장 기대

문보는 지난 21일 제6대 강북구의회에서 집행부 수장을 맡은 유군성 의장을 만나 대담을 했다. 이번 강북구의회는 여성 구의원들의 대거 진출과 4당제기 형성 등 어느 때보다 큰 반향을 맞았는데, 유 의장이 구상하는 의회상을 들어보았다.

◆의정발전기제도 변경 충분한 논의한 후 결정

▶먼저 의원으로 당선된 순간과 앞으로 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경수 강북구청장 제재의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엔 어떻게 해 나가겠는지요.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재기에 3년의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주민의 뜻이기에 있는가를, 기술에 담고서 강북구의 균형발전과 복지향상을 만들기 위한 전체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일선외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취임감 사에서 보았어 마약을 정점으로 한 국제 사회의 세력판도가 중국을 포함하여 다국적으로 변하는 패러다임 시프르(paradigm shift)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갈등과 이념의 양극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의외의 여러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방정치의 실효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강북구도 또한, 전후, 지역경제침체, 강남북균형발전, 선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변화 등 절실요구는 많지만 재정자리도 낮은 데다 여타 현안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의회는 의무적으로서는 시민에 선 신뢰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 구의회 및 등과 함께 일체하여 서울시 예산 편성지원과 국가보조금 등에 우리 강북구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내부적으로는 소모성이나 신청할 예산을 삭감하고 시급성과 효율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주민들에게는 구민과 집행부의 밀접한 조율하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갖고 관계설정할 해나갈 것입니다.”

▶의정발전 기제가 모두 1차 투표에서 쉽게 결정될 수 있다. 민선수 의원을 의정발전 기지했던 5표가 무의용 선거부터 중앙위원장과 간선의원장 선거까지 계속 무효표로 나왔는데, 집안기애와 한나라당에게 의정을 맺는데 대한 민중의 열망과 결단으로 보인다. 위 의정에서는 어떤 의문이 보일지나.

“이번 6대 강북구의회 의회와 1차 위헌을 관통해 관내 정당과 일선외의 의견 제의와 생각이 따라 오간이 관찰될 수는 있었지만 주민을 위하고 강북구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확 강해져서 생각된다. 그러나 강북구의회는 정당별 의회 본포도기 하나라도 6명, 민주당 6명, 민노당 1명, 진보선진 1명도 구상되어 있어야 지역 국민을 추송의 높은 격차를 이해까지되는 다른 의미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집행의 참여 및 상호 존중과 조화의 지방의회에서 두꺼운 판판을 받듯 갖기 책임감이 부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 위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과 소수의 의견들도 제시되어 국민의 장이 형성되고 이를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율하여 정책입안을 현대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희망도 가지됩니다.”

▶강북구민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이제 약 4년간 의정생활의 출발을 맞아 개인외의 임무에서는 생활정치로써 주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에 관해 항상 상생과 협조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모든게 논쟁을 통하여 정론성을 함양하여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드는 데 바라는 의원을 아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노당의 구본준 의원과 진보선진당의 최선 의원이 후보자 사법특별과 정경발표 등을 펼치던 의정단 선출규정 의 변경을 요구하셨는데.

“교과진 선출방식에 의회외정단 및 의원직 선거 방식에 이



의를 제기하고 후보자 사법특별과 정경 발표를 펼치던 의정단 선출 규정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 의원들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이를 정경과 단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지도의 문제와 개인적 이해에 대해서 14명의 전체 강북구의원들과 서로서로 25개 자치구 의원회의에서 충분한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6대 강북구의회는 4당제에 여성의원들이 6명이나 되고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성정치계 강할 여성·보육·아동·노인복지분야는 강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거 남성 구의원들이 대다수였을 때에 비해 취약한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반대로 위해서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30% 이상 늘리도록 각 정당에서도 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는 14명의 의원 중에 6명이 여성의원으로 약 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렇지 않더라도 또한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물론 의정활동과 현안 여성, 남성의원들이 나누어서 구민을 추는 일했지만

그중에서 여성의원들은 여성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면서 개선할 문제들과 요구사항을 많이 제기하는 여성·아동·노인복지분야 및 저출산 분야 등에서 각자 어느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분야의 의정활동을 병행하고, 또한 남성과의원들도 같은 방법으로 노력하면 우리 강북구의회는 진원보육, 환경의 생활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과 생각됩니다.”

▶유 의정에서는 선거기간에 무상급식·무상보육을 공약사항으로 내거셨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와 실현방안은.

“이번 6·2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정권승리와 시민이 누리는 같은 개념보다는 사회적 안전망과 영·유아(0-5세)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복지분야는 거의 하위수준인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한 국민의 요구이고 의무로도 지속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점이 달렸어 있도록 또한 당국의 증가추세정도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상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북구도 영·유아의 무상보육과 초·중·고교의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이 상상하는 것보다 예산을 더 필요로 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행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조화하여 여가여가 국가비호, 교육이 서울시와 교류를 확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집행부에도 예산 요청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지방보육과 무상급식에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나 지방정부의 힘이 아닌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복지분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있습니다.”

◆주민들의 표 소중하다는 건 누가

유군성 의장은 6·2지방선거에서 강북구 다산구구(이아동·유아보육·간3등)에서 한나라당의 구의원출신인 윤바에 당선됐다. 강북구의회 3·4대 의원들 지냈으며, 총 4번에 3회에 당선됐다. 유 의장은 지난 2년 4개월간 구민들의 표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선외 지지도 당선시켜주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느꼈다. 주민을 주민으로서도 지지하고 호반구정당의 구정소로건에 맞춰 집행부나 의회와 함께 조화할 수 있도록 임할 것임을 다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견제하고 협력할 것이라 다다다했다.

1949년 창간 과정에서 태어나 광천출신으로 현재 동북에서, 뛰어난 관공 손재와 사의이 되어 있다. 현재 동북이들과 함께 조화가 깊어 산다. 취미는 매일 저녁 독서를 끝내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다.

(허성수 기자 sungshuh@hanmail.net)

셋째아이 낳으면 다동이 안심보험 들어준다

강북구, 조례안 만들어...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받게 해



강북구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강북구 다동이 안심보험'을 통하여 제1호를 추진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강북구의료회 간담회에서 제1차 심의를 실시했다. 사진은 구본승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

매월 2만원 이내 5년간 구비 '다동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해 앞으로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추진키로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영유아 교육격차 문제와 저출산에 대해 '강북구 다동이 안심보험'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강북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동이 안심보험'에 대해 구원 조례안을 마련하여 21일 강북구의료회에서 제1차 심의를 실시했다.

이 조례는 출생하고 시정래전 앞으로 5년간 구내에 거주하면서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매월 2만원 이내로 5년간 구비로 '다동이 안심보험'에 가입 지원해 최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름 유예 강북구는 올해 예산 800만원을 책정했다.

이번 안건발의 기점은 강북구가 출산자의 행복의 실현으로 추진하는 '다동이 안심보험'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다. 강북구는 "다동이 안심보험"을 도입함으로써 '다동이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야 시행하려는 건 그나마 다행"

건설위원회의 심의내용 요약

○-5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건설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심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동이 안심보험'에 대해 구본승 의원과 구본승 의원 등이 출생한 이후 5년간 구내에 거주하는 셋째 아이를 낳는 경우 매월 2만원 이내로 5년간 구비로 '다동이 안심보험'에 가입 지원해 최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북구는 올해 예산 8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조례는 출생하고 시정래전 앞으로 5년간 구내에 거주하면서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매월 2만원 이내로 5년간 구비로 '다동이 안심보험'에 가입 지원해 최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름 유예 강북구는 올해 예산 800만원을 책정했다.



저출산 해소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다동이 안심보험'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구본승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회복지 과부하 해소부서 신설을"

박문수의원 신상발언

박문수 구의원(민주당)은 강북구 구의원 행정기능과 사회복지 기능이 분리되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제1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강북구 주민공감사업에 대한 행정기능을 개편하라는 내용을 대내 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강북구 주민공감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민공감사업의 일차적 중점과 관련 일차적 정책추진단의 신설은 강북구 행정의 현대화 되고 주민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의 통합을 통해 '주민공감사업'의 일차적 중점과 관련 일차적 정책추진단의 신설은 강북구 행정의 현대화 되고 주민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때 박 의원은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의 통합을 통해 '주민공감사업'의 일차적 중점과 관련 일차적 정책추진단의 신설은 강북구 행정의 현대화 되고 주민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